

별첨 2 제 안 서

2017학년도 융합캡스톤디자인 아이디어 제안서

1. 제 안 명 : 자기 자신을 알아 (다른 사람에 대해 알기 전에 나부터 알아.)
2. 제안주제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챗봇을 융합한 나만의 아바타
3. 제안목적 :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도록하고 자기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위해 제안한다.
4. 활동계획 :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추진계획도 및 간략한 개요 등을 작성)
팀장, 아이디어: 강민지
자료조사, 아이디어 보조: 박혜원, 이유리

I 아이디어 도출계기

II 용어 정의

III 아바타

- i VR을 통한 인터넷의류쇼핑
- ii AI 챗봇을 통한 고민상담
- iii AI 챗봇+AR을 통한 비서역할

IV 결론

V 출처

5. 기대효과 : (추후 특허 및 창업, 실제적 문제해결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

자기 자신에게 시간투자를 하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 A4 양식으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함. (글씨크기 11P, 10매 이내)

I 아이디어가 도출된 계기

우리 팀의 팀원들은 모두 자신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다. 항상 스케줄을 쓰고 공모전, 과제, 서포터즈 등 많은 활동들을 한다. 하지만 스케줄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 그 이유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해보려 했으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노트북이었다. 이를 통해 내가 웹상에서의 나를 보고 웹상에서의 내가 현실에서의 나를 도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아바타’이다.

II 용어정리

1. VR(가상현실)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이때, 만들어진 가상의(상상의) 환경이나 상황 등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한다.

2. AR(증강현실)

실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현실이다.

3. AI(인공지능)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 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한다.

III 아바타

로그인 후 자신의 신장,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 세세한 본인의 신체 정보를 작성 후 컴퓨터 카메라로 본인을 스캔한다. 그러면 가상세계에서의 자신과 똑같은 아바타가 생성된다.

이 아바타는 일반 AI 챗봇과는 달리 음색배달, 숙박 예약같은 것들 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아바타 기능은 온라인 의류쇼핑, 대화(고민상담), 비서 역할 이 세 가지이다.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동시켜 사용가능하다.

i VR을 통한 인터넷의류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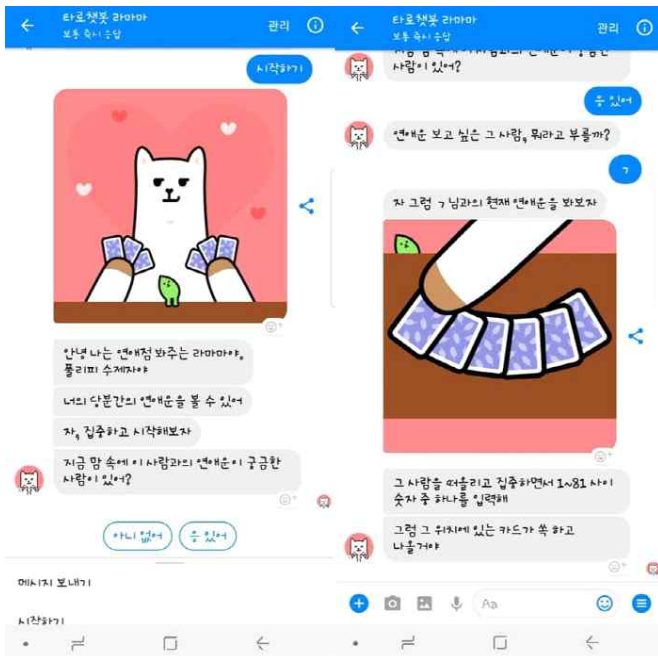
현재의 인터넷 쇼핑몰로는 옷의 부정확한 사이즈와 자신과 잘 어울릴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한다.

본인 신체 정보를 기입하고 스캔하여 외형이 똑같은 나의 아바타에 이 아바타 시스템과 교류하면서 간편한 로그인이 가능한 쇼핑몰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아바타가 그 사이트에서도 유효하며 그 쇼핑몰의 옷들을 3D차원 가상이미지로 ‘입어보기’라는 채널을 통해 입혀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핏, 색감 등이 자신과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질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아바타가 입은 이미지를 확대를 해서 질감이 어떤 느낌인

이 아바타는 오직 나만의 아바타이기에, 나만 볼 수 있는 아바타이기에 그런 염려거리가 없다. 아바타와 대화를 하다가 고민상담을 하고 싶으면 ‘고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톱을 보낸다. 그 후 고민을 연애, 금전, 우정, 가족, 미래, 직업 등으로 분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 후 대화를 나눈다. 이때 이 아바타의 인공지능으로 그 분야에 대한 대량의 경우, 상황, 공감능력을 주입하여 인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모방하도록 한다.

현재에 나와있는 고민을 들어주는 비슷한 챗봇이 있다. 이는 타로 챗봇 ‘라마마’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챗봇'이다. 시간에 관계없이 실시간 응답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 서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시작하기를 누르면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된다. ' 지금 맘 속에 이 사람과 연애운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라는 질문을 건넨 채팅의 주인공 '라마마' '는 타로 카드 80개 중 하나를 뽑도록 제시한다. 상담자의 연애 상태(썸타는 사이·연인·관심상대· 헤어진 연인)에 따라 적절한 조언과 추천을 내놓는 식이다.

또한 현재의 다른 AI 챗봇을 보면 인간의 의사소통을 모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어 '네 이버 톡톡'와 같이 목적이 뚜렷한 컴팩트한 챗봇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알파고들이 자 신들끼리 바둑을 두는 것이 항상 주입되어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인간의 모든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iii AI 챗봇 + AR을 통한 비서역할

스케줄러를 사용하여도 너무 바쁜 현대인에게는 바쁜 시간대에 퍼블 겨를이 없다. 이 때문에 적 어놓은 스케줄을 잊고 시행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아바타에게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면 스케줄에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매일 아침 알람과 동시에 당일 저장되어있는 스케줄을 날씨와 함께 채팅으로 알려준다. 여기서 계획은 '쉬운 계획'과 '계획'으로 나누어서 채팅을 보낸다. 뉴스 한줄요약은 선택사항이다. 만약 선택한다 면 스케줄과 함께 채팅으로 알려줄 것이다.



또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스케줄일 경우 GPS를 사용한 위치를 지정하여 저장한다. 그럴 경우 ‘포켓몬 고’에서 일정한 위치에 있을 때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아바타의 AR로부터 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여기서 얻는 포인트는 쇼핑할 때 ‘입어보기’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쉬운 계획은 점심시간대에 다시 한 번 채팅으로 알려준다.

이는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신들이 계획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 지 보다 알아가기 쉬운 것이다.

IV 결론

요즘 현대인들은 대중성에 치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어울리는지 모르는 경향이 많다. 또한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덮고 상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위에서 말한 아바타의 역할 세 가지 온라인 의류쇼핑, 고민상담, 비서역할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시간투자를 하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VII 출처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653682&memberNo=100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04439>